



3면
민주더시민 합당
"첫 1년이 정권 재창출 시금석"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주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빌 6번지

2020년 5월 14일 목요일 (음 4월 22일) 제253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청년허브센터 문 활짝

취업·창업·복지 등 청년정책 종합서비스 제공 온·오프라인 플랫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

청년정책 관련 도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할 거점공간인 '전북청년허브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전북도는 13일 오후 2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1층에서 송하진 도지사, 임세은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 강용구 도 농산업경제위원장을 비롯해 지역청년과 청년단체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청년허브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과 함께 도내 분야별 청년정책 정보공유 협력 대표기관들은 업무협약을 맺고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지원 종합체계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력 대표기관은 전북대, 원광대, 군산청년센터, 고용노동부전주지청, IH 전북본부, 전북문화관광진흥원, 전라북도일자리종합지원센터이다.

전국에서 열 번째로 문을 연 '전북

청년허브센터'는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청년들의 삶의 질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센터는 ▲온·오프라인 청년 맞춤형 정책정보 안내 및 상담 ▲지역 청년 수요를 반영한 '교육사업' ▲지역 시면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으로 만들어 가는 '청년정책 발굴' ▲지역 청년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이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1층에 조성된 전북청년허브센터는 3개월에 걸친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지원 상담창구, 청년 커뮤니티 및 정보공유 공간을 조성하고, 전북청년정책포럼단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C제자 등을 통해 청년이 언제나 가고 싶은 알찬 공간으로 완성됐다.

청년허브센터 위탁 운영은 지역의 혁신창업 거점공간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맡았다.

전북도는 이날 청년허브센터 개소에 앞서, 청년들에게 맞춤형 정책안내 및 상담을 진행하기 위한 청년정책 정보공유 체계구축에 주력했다. 개소 전 청년정책 유관기관 방문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57개 기관에 대한 청년 사업 자료를 취합한 데 이어 개소식에서 이들 기관과 MOU를 체결해 왔다.

이후에도 청년허브센터를 통해 청년에게 혜택이 되는 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청년허브센터는 청년들의 고민에 공감하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며,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점 공간이 될 것"이라며 "도에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전북의 미래를 키우는 마음으로 센터 활성화를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청년단체 공연, 김달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부단장 등 청년기관 관계자 축하영상, 분야별 청년정책 정보공유 협력 대표기관 업무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전북도 청년정책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할 거점공간인 '전북청년허브센터'가 13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1층에 개소한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왼쪽)와 임세은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을 비롯하여 지역청년 및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확산세에 따라 행사 전날 시설 내부 소독을 실시했고, 행사 당일에는 참석자 전원에게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안전하고 간소하게 진행됐다. 청년정책을 안내 상담 받고자

하는 청년은 전북청년포털(www.jj000.or.kr) 게시판 카카오톡 채널 '전북청년허브센터', 청년센터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063-227-2080)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날 개소식 이후에는 임세은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과 도 관계자 지역 청년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실시해 지역 청년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정부에 바라는 점 등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김진성기자

전주시 '해고 없는 도시' 175개 사업장 동참의사

79곳과 상생협약 체결...고용유지·안정 상담 본격

전주지역 175개 사업장이 코로나19 발 고용위기 상황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상생협약에 동참키로 했다. 동참의사를 밝힌 전체 사업장 중 79곳은 실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고용유지에 앞장서기로 했다.

전주시는 전북은행과 함께 500억원 규모의 고용유지 특별지원금을 조성키로 한 데 이어 이들 상생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안정 상담 및 지원을 맡을 '해고 없는 도시' 컨트롤타워를 본격 가동했다.

시는 13일 한국전북문화재단에서 김

승수 전주시장, 전주시의회 박병술 의장과 박형배 문화경제위원장 김승섭 부위원장, 안남우 전북중소벤처기업청장과 김근영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장 배신수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장 신영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과장 심병국 한국노총 전북본부 총무국장 임재원 전북은행 부행장 윤진식 한국공인노무사회회 전북지부장을 비롯한 고용 유관기관 및 지원기관 대표, 유현주 두메산골영농조합법인 대표와 이병관 대자병원장 임신호 전주병원장을 비롯한 전주지역 79개 사업장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전주지역 175개 사업장이 코로나19 발 고용위기 상황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상생협약에 동참키로 했다.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지난 달 21일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상생 선언을 시작으로 고용유지 상생협약에 참여의사를 밝힌 175개 사업장 중 이날 1차 협약에 참여하지 못한 96개 사업장과의 협약식은 추후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상생기업에 대해 △고용유지 경영인전 자금 이차보전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환도래 기업 이차보전 연

장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분 지원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보험료 및 연체료 지원 △고용유지 교육·훈련 참여기업에 교육·훈련수당 지원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유예 등을 지원해 고용안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향후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에 상생기업이 참여할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시는 한국전북문화재단 5층에 '해고 없는 도시'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현장지원종합상황실'을 마련하고, 개소식을 갖기도 했다. 현장지원종합상황실은 기업의 고용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해 시와 근로복지공단, 노무사회 등 고용 유관기관의 직원 30명이 근무하게 되며,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고용환경이 안정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이곳에서 현장지원단의 총괄 운영을 맡고, 유관기관들은 전문 상담 인력을 지원하게 된다. 전주중소기업

인연화회는 찾아가는 현장건설방안을 운영한다. 현장지원단은 또 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약을 유도하고 고용유지 지원사업도 전개한다. 동시에 기업의 애로사항청취 등 고용 관련 종합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달 102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와 지원절차가 복잡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의 40%를 차지함에 따라 기업 1:1 방문 서비스를 집중 운영키로 했다.

시는 이날 말까지 현장지원종합상황실을 시범 운영해 상생협약 업체모집과 사업 안내, 각종 상담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 뒤 문제점 등을 보완해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 다음 달부터 각종 사업들을 신청받아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강력한 사회적 연대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성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